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행복감 관련 변인

황연경^{1*}, 홍은영²

¹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 ²천안시상담복지센터

The Current Status of Life and Happiness of Out of School Youth

Yeoun-Kyoung Hwang^{1*}, Eun-Young Hong²

¹Dept. of Lifelong Education, Hanseo University

²Cheonan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요약 본 연구는 천안시의 학교밖 청소년 25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방법은 SPSS PC+ Win.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평균비교분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보다 낮았고, 행복감은 학업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청소년이 가장 낮았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들은 하루 중 수면 7.9시간, 일 3.91시간 등으로 사용하였고, 활동 장소는 집 10.73시간, 일터 3.66시간 등이었으며, 장래계획은 취업계획이 가장 많았고, 친구는 함께 게임 놀이할 친구가 가장 많았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희망 및 행복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희망, 취업계획, 가정소득수준 순이었다.

주제어 : 학교밖 청소년, 행복감, 희망, 자아존중감, 생활실태, 다중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if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250 out of school youth in Cheonan cit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21.0 were used, and reliability, mean compari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First, adolescents who stopped studying due to family problems was lower in self-esteem than those who did for other reasons. Males was higher in happiness than females, and those who were less than two years of drop-out duration than those with over two years. Second, out of school youth used a day as 7.9 sleeping hours, 3.91 working hours. For the places for daily activities, they stayed at home for 10.73 hours, at working place for 3.66 hours. The future plan was the most for job plan. Thir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hope,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out of school. Fourth, the relative impact on the happiness of out of school youth ranked in the order of self-esteem, hope, employment plans, and household income level.

Key Words : Out-of-school youth, Happiness, Hope, Self-esteem, Life statu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서론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년 6-7만 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령기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 청소년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은 그들

안 학업중단 청소년, 중도탈락자, 중퇴생,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으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9세~24세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국가에서 인정하는 초·중등과정에 해당되는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정의

*This paper is a revision of some of the research reports of th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of Cheonan City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Yeoun-Kyoung Hwang(01020707980@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7, 2017

Revised January 30,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경험을 받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 별로 각각의 운영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준비과정 없이 학교를 중단하게 되고, 이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2], 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사례연구 및 소수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등의 질적 연구[3-5]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의 비교 연구[6],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7-9], 우울과 공격성, 스트레스, 자살 등 부정적 요인에 관한 연구[10], 대안학교와 관련된 연구[11]가 대부분이며, 현재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긍정적인 심리수준과 시간·장소활용 등을 포함한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몇 가지 변인에서 차별성 있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행복감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학교밖 청소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희망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희망(hope)은 성공적인 주도와 경로사고가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된 사고의 긍정적 동기 상태인데[12],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13,14].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달성할 수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행복감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행복감을 가장 잘 예측하게 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15]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 및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도이다[16].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가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17].

둘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하루 일과와 미래에 대한 계획, 친구 관계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먼저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활동의 장소는 어디이고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청소년기에 개인 시간 활용 형태는 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진로와 삶의 모습까지도 달라지게 된다[18].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친구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실태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심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개인특성, 계획특성 및 심리적 특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8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하였고, 자료수집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 즉, 드림학교, 직업전문학교, 여자 쉼터, 남자 쉼터, 보호관찰소, 상담복지센터의 꿈드림 스마트 교실, 천안 소재 검정고시학원 및 충남청소년진흥원을 방문하여 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 및 학교밖 청소년의 동의를 얻은 후,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전체 대상자의 수는 250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60.7%, 여자 39.3%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17세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일반고 재학 시가 53.7%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재학 시와 중학교 재학 시는 동일하게 23.2%이었다. 학업중단 기간은 1년 미만이 49.3%이었고, 1-2년 미만 26.6%, 2년 이상 24.1% 순이었다. 학업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0%가 개인문제라 하였고, 학교 문제 19.6%, 대안을 위해 14.4%, 친구문제와 가정문제는 각각 6.0%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50	60.7
	Female	97	39.3
Age	13 years old	3	1.2
	14 years old	8	3.3
	15 years old	18	7.5
	16 years old	31	12.9
	17 years old	67	27.8
	18 years old	62	25.7
	More than 19 years old	52	21.6
Dropout time	Middle school	47	23.2
	Special high school	47	23.2
	General high school	109	53.7
Dropout period	Less than 1 year	100	49.3
	1 year ~ 2 years	54	26.6
Reason for dropout	More than 2 years	49	24.1
	Personal problem	85	34.0
	Friend problem	15	6.0
	Home problem	15	6.0
	School problem	49	19.6
	For the alternative	36	14.4

조사 내용은 총 45문항이며 심리적 특성 27문항과 실태 13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1 심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 심리적 특성은 희망,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으로 구성하였다. 희망은 Snyder 등[12]의 희망척도를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1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이며, 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주도사고와 목표에 도달할 방법 유무에 대한 경로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감

은 서은국, 구재선[20]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9개 문항이며,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 집단적 측면에 만족도를 측정하는 3문항과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은 4점 Likert 척도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9이었고,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아존중감 .821, 행복감 .782이었다.

2.2.2 생활 실태

본 연구에서 생활실태는 친구 관련 특성 3문항, 하루 24시간 활동 및 활동 장소에 대한 2문항, 향후 계획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 학업중단 시기·기간·이유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비교 분석인 t-test와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정은 Duncan과 T3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 산출하였고, 각 변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학교밖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차이

학교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변인의 평균값은 모두 중위수를 상회하였다. 4점 척도인 희망의 평균이 2.8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3.36점, 행복감이 3.25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 이상이였다.

Table 2. Mean comparison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Self-esteem	248	3.36	0.59
Hope	248	2.80	0.51
Happiness	248	3.25	0.60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업중단 시기·기간·이유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 성별과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행복감은 성별과 학업중단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희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대안을 위하여(3.59), 개인문제(3.37), 친구문제(3.33)인 학교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정문제(2.99)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았다. 또 행복감은 남자(3.34)가 여자(3.11)보다 높았고, 학업중단 기간이 1-2년 미만(3.33)과 1년 미만(3.29)인 청소년의 행복감이 2년 이상인 청소년(2.97)보다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t value /F	Duncan	
Self-esteem	Reason for dropout	Personal problem	85	3.37	0.60	3.457**	a
		Friend problem	15	3.33	0.74		a
		Home problem	15	2.99	0.54		b
		School problem	48	3.25	0.47		ab
		For the alternative	35	3.59	0.60		a
Happiness	Gender	Male	148	3.34	0.59	2.860**	
		Female	97	3.11	0.61		
	Dropout period	Less than 1 year	99	3.29	0.65	5.852**	a
		1 year~2 years	54	3.33	0.52		a
		More than 2 years	48	2.97	0.56		b

**p<.01

3.2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차이

3.2.1 활동 시간 및 장소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난 1개월 동안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하는 활동 시간과 활동하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면시간이 7.9시간(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락, 운동, 친구모임 등의 여가시간 5.05시간(21%), 생활 및 기타시간 4.25시간(18%), 아르바이트 및 직업 등 일하는 시간 3.91시간(16%), 학원이나 독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학업시간 2.88시간(1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활동하는 장소는 집에서 있는 시간이 10.73시간(45%)으로 가장 많았고, 일터 3.66시간(15%), 여가장소

3.09시간(13%), 기타 2.97시간(12%), 학원이나 도서관 및 고시원 등 1.97시간(8%), 친구 집 1.57시간(7%) 순이었다.

Table 4. Activity time and place during the day

Classification		N	M
Activity time during the day	Sleeping time	242	7.90
	working time	193	3.91
	Studying time	201	2.88
	Free time	214	5.05
	Life and other times	150	4.25
Activity place during the day	House	229	10.73
	Friend's house	167	1.57
	Studying place	166	1.97
	Working place	174	3.66
	Place for leisure	198	3.09
	Other places	122	2.97

3.2.2 향후 계획

학교밖 청소년의 향후 계획은 Table 5와 같다. 취업계획(2.94)이 가장 높았고, 계획없음(2.55), 학업지속(2.21)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취업(3.39)이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3.37), 검정고시(2.96), 계획없음(2.55), 직업훈련(2.49), 복학(1.96), 기타(1.93), 대안학교(1.83)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향후 계획은 일반적 특성 즉, 성별, 교육수준, 학업중단 기간 및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Future plans

Classification		N	M	M
Future Plans	Continue studying	240	2.21	0.83
	Job plan	238	2.94	1.20
	No plan	211	2.55	1.30
Continuing learning	Reinstatement	234	1.96	1.28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middle/high school	238	2.96	1.54
	Alternative school	236	1.83	1.12
	Others (Studying abroad)	231	1.93	1.16
Job plan	Part time job	235	3.37	1.32
	Job training	233	2.49	1.34
	Employment	235	3.38	1.46
No plan	No plan	211	2.55	1.30

3.2.3 친구 관계

학교밖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는 Table 6과 같이, 개인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44.9%)가 가장 많았고, 많이 있다(27.1%), 매우 많이 있다(11.7%), 거의 없다(10.1%), 전혀

없다(6.1%)의 분포를 보였다.

게임이나 놀이를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는 보통이다(39.7%)가 가장 많았고, 많이 있다(27.1%), 매우 많이 있다(21.1%) 순이었으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는 보통이다(47.2%), 많이 있다(17.3%), 거의 없다(16.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문제를 상의할 친구와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할 친구 및 공부할 친구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했으나,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할 친구와 개인 문제를 상의할 친구가 공부를 함께 할 친구보다 많았으며, 특히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할 친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Friend relationship

Classification	Not at all	Almost none	Normal	many	Too many
A good friend to discuss personal matters	15 (6.1)	25 (10.1)	111 (44.9)	67 (27.1)	29 (11.7)
A good friend to play games(play)	12 (4.9)	18 (7.3)	98 (39.7)	67 (27.1)	52 (21.1)
A good friend to study together	22 (8.9)	40 (16.1)	117 (47.2)	43 (17.3)	26 (10.5)

Table 7. Difference in friend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t value /F	Duncan	
A good friend to discuss personal matters	Gender	Male	149	3.40	0.98	2.029*	
	Female	97	3.13	1.01			
	Reason for dropout	Personal problem	84	3.24	1.07	2.822*	ab
		Friend problem	14	3.00	1.36		b
		Home problem	15	2.93	1.44		b
		School problem	49	3.20	0.74		ab
		For the alternative	36	3.75	0.73		a
A good friend to play games(play)	Gender	Male	149	3.70	1.02	3.267**	
	Female	97	3.27	1.04			
A good friend to study together	Dropout period	Less than 1 year	100	3.13	1.13	4.687*	a
		1 year~2 years	54	3.09	0.94		a
		More than 2 years	49	2.59	0.98		b

*p<.05, **p<.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친구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개인문제를 상의할 친한 친구는 성별,

성별, 학업중단 시기·기간·이유 중 성별과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는 성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는 학업중단 기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문제를 상의할 친한 친구는 남자(3.40)가 여자(3.13)보다 많았고, 대안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집단(3.75)의 개인문제 상담 친구가 가정문제(3.24) 및 친구문제(3.00)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집단보다 많았다.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는 남자(3.70)가 여자(3.27)보다 많았다. 또, 학업중단 기간에 따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친한 친구는 1년 미만(3.13)과 1-2년 미만(3.09)이 2년 이상(2.59)보다 많았다.

3.3 심리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희망 및 행복감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의 하위변인들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r=.636, p<.01$)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희망과 자아존중감이 높았다($r=.588, p<.01$).

Table 8. Correlation among psychological traits

	Self-esteem	Hope	Happiness
Self-esteem	1		
Hope	.588**	1	
Happiness	.636**	.465**	1

**p<.01

3.4 학교밖 청소년 행복감의 예측 변인

학교밖 청소년의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성별, 가정소득수준), 미래 계획(학업계획, 취업계획), 그리고 심리적 변인(자아존중감, 희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Durbin-Watson,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Leverage값, 공차한계(Tolerance), 상승변량(VIF) 값을 산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값은 1.843으로 정상범위(0-2)에 있었으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001-21.165, 0.000-0.100,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값은 0.004-0.092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한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상승변량(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0.644-0.967, 상승변량은 1.034-0.619로 각각 정상범위인 1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분석결과 투입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을 45.2% 설명하였으며($R^2=0.452$), $F=30.950(p<.001)$ 으로 본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은 가정소득수준, 취업계획, 희망 및 자아존중감이었으며, 예측변인들의 행복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beta=0.512, p<.001$), 다음으로 희망($\beta=0.136, p<.05$)이었다. 즉, 학교밖 청소년의 행복감은 가정소득수준이 높고,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 또는 취업계획이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희망이 높을 때 높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Table 9.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alue	Significance
	B	SE	β		
(Constance)	.747	.217		3.449	.001
Gender (Male=1)	.106	.062	.086	1.708	.089
Household income level	.068	.034	.105	2.013	.045
Plan of continuing learning	-.067	.040	-.088	-1.656	.099
Job plan	.059	.028	.113	2.100	.037
Self-esteem	.523	.064	.512	8.154	.000
Hope	.161	.073	.136	2.217	.02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실태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기간이 2년 이상된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2년 미만인 청소년들보다 낮았는데, 공교육 중단 후 2년 이상된 청소년은 서비스의 접근성과 대상 청소년의 발굴에서 현저하게 감소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교육 중단 전 단계부터의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부터 전문상담사에게 본 서비스에 대한 면대면 안내를 받고, 필요 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안내 및 청소년 관리 그리고 관련기관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일과시간은 하루에 수면 7.9시간, 여가 5.05시간, 생활 및 기타 4.25시간, 일 3.91시간, 학업 2.88시간이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작성한“2016 청소년 통계[21]”와 비교해보면, 학교밖 청소년들의 수면시간(7.90)이 청소년 평균 수면시간(8.30)보다 적었고, 일시간(3.91)은 청소년 평균 수입노동시간(1.5)보다 높았으며, 학업시간(2.88)은 청소년 평균 학습시간(4.92)보다 낮았다.

셋째, 향후 자신의 계획에 관해서는 향후 취업을 계획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학업지속이 가장 적었다. 자신을 낙오자로 스스로 인식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교육과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한데,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직업탐색과 진로체험 및 인턴십 제도를 통한 진로경험이 제공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친구관계는 게임이나 놀이를 함께 할 친구가 가장 많고, 공부를 함께 할 친구가 가장 적었다. 청소년기의 또래집단 활동은 중요한 발달과업인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학교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희망 및 행복감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학교밖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변인의 증진보다는 여러 관련 변인들의 통합적인 증진과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행복감의 예측변인은 가정소득수준, 취업계획, 희망 및 자아존중감이었고,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희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방안이 항상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예를 들면 작은 성공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과 도전의식 및 성취감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인증제나 자아성취프로그램 등이 있다.

일곱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나 희망은 매개변인[22,23]으로 자주 활용된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나 희망이 어떠한 변인들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가 자신들의 삶의 공간이기보다는 일터나 다른 장소가 오히려 더 매력이 있

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다. 과거와 같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을 문제아로 인식하거나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들은 학교에 다닐 때와 행복감이나 자아존중감에서 큰 차이가 없고, 좀 더 일찍 취업 준비를 하거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의도를 가진 청소년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생활실태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Yoon, C. K., Seo, J. A., Ryu, S. Y. & Cho, A. M. (2014). Characteristics of school dropout adolescents and paths after abortion : school dropout adolescents panel survey I.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Research Report*, 1-323.
- [2] Choi, D. S., & Lee, S. J. (2009). *Career development support plan for school drop-out youth*. Seoul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3] Lee, L. J. (2015). *A case study of breathing meditation and drawing experiences about school dropout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 [4] Lee, S. H. (2015).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about school dropouts' returning experience 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 in alternative education : The students out of schools, open the doors of another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7(1), 333-356.
- [5] Lee, J. Y., & Chung, J. Y. (2015). The qualitative study of analysis on the reason why drop-out students have regret or satisfaction on their drop-out decis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1), 239-267.
- [6] Park, G. S., & Kim, M. (2016).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us between students and out-of-school youth.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4(2), 17-26.
- [7] Baek, H. J., Song, M. K., & Shin, J. M. (2015). Study on the efficient method of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Research Report*, 1-310.
- [8] Hwang, S. Y., & Jeo, S. H. (2015). Developing a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 for out-of-school youth.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Research Report*, 1-158.
- [9] B. D. Oh, & K. H. Kim. (2013). The statistical estimation of out-of-school youth population for the youth welfare polic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dolescent Welfare*, 15(4), 29-52.
- [10] Oh, E. K. (2015).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nd aggression of youth out-of school : focusing on Daejeon area*.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 [11] Choi, Y. S. (2015).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dropout youth to a city type alternative school*.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Seoul.
- [12]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R. (1991). Hope and health.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162, 285-305.
- [13]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Simon and Schuster.
- [14] Snyder, C. R., LaPointe, A. B., Jeffrey Crowson, J., &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 Emotion*, 12(6), 807-823.
- [15] Compton, W. C. (2005).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Thomson Wadsworth.
- [16] Rosenberg, M. (201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7] Lee, H. J. (2017). The effects of school happiness on stress, self-esteem, self-control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te Dissert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18] Jeong, E. J. (2014).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V: basic analysis report I: youth life time trend analysis.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1-279.
- [19] Choi, Y. H., Lee, H. K., & Lee, D. G. (2008).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nyder's dispositional hop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2), 1-16.
- [20] Suh, E. K., & Koo, J. S.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6-114.
- [21] Statistics Korea-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Youth Statistics
- [22] Kim, Y. J., & Lee, C. S.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39-547.
- [23] Lee, C. S, Park, J. Y., & Jang, H. Y.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35-43.

황 연 경(Hwang, Yeoun Kyoung)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학과(평생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평생교육, 진로교육, 퍼스널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 E-Mail :

01020707980@hanmail.net

홍 은 영(Hong, Eun Young) [정회원]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상담심리 교육전공(교육학 석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상담심리전공 박사수료

▪ 2007년 3월 ~ 현재 :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부모상담, 학교 밖 청소년

▪ E-Mail : 42joa@korea.ac.kr